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과 도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2015-2022) 분석

| | | | | | |
|--------------|----------------------|-------------------------|--------------|--------------------------|--------------------|
| 정 주 리 | 김 민 정 | 이 지 연 | 정 지 선 | 양 승 민 | 양 은 주 [†] |
| 전남대학교 부교수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부산대학교 조교수 |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수 |

최근 심리상담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학계에서는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상담심리 분야의 역할과 정체성, 차별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층 치열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상담심리학 연구에도 반영된다.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상담심리학의 정체성과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논문투고가 정착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동향을 연구자 소속,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8년간 연구 동향 분석과 함께 연도별 특성을 분석하여 투고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연구자는 국내대학 소속(88.7%)이 가장 높았고, 연구대상으로는 성인(4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24.9%)으로 나타났다.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 면에서 성격과 적응(47.3%)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투고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연구주제 측면에서 상담성과 및 과정 연구가 더욱 줄고 2019년 이후로 다양성 주제 연구가 2020년 이후로 상담서비스 인식 주제 연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다양화, 상담자 교육과 훈련, 상담심리학 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전문가 정체성, 도전과제

† 교신저자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인문계 캠퍼스 운초우선 교육관 618호, Tel: 02-3290-2865, E-mail: yange@korea.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2년 심리상담 분야 법제화 관련하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상담이란 무엇이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알리는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성현모 등, 2023). 상담심리학계는 이에 발맞춰 상담심리학 분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더욱 드러내고 인접 학문 분야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담심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한국심리학회 분과로 출발한 1964년 이후로 1, 2급 상담심리사를 약 8,800명(2022년 기준)을 배출하였고, 참여 회원이 약 40,000명이 넘는 학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학회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은 학회 자격증을 가진 상담심리사에 대한 고용과 처우 문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처, 학회원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 학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서영석, 2019).

단순히 학회 차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의 전문성과 정체성 역시 시대와 맥락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안수정 등, 2021). 예를 들어, 한국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에 관한 관심과 필요가 커지면서 다문화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나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 교육과 재교육, 다문화 및 사회정의에 초점을 둔 수퍼비전이 요구된다. 또한, 2022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대응 및 옹호 활동을 위한 상담심리학자들의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상담, VR 또는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상담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담심리학자의 실무, 연구, 옹호 활동

에서도 이런 학회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대적 감각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상담심리학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상담심리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국내에서 상담심리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경계를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추석호(1991)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상담심리학이 가지는 학문적 정체성과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상담심리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상담심리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학문적 자기성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계원 등, 2011; 조성호, 2003). 이에 조성호(2003)는 ‘진정한 의미’의 상담심리학 연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학술지 편집자들이 편집 방향과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이러한 학술지 편집방향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경우, 투고 논문의 평가 항목으로 내용 구성의 적절성과 완성도(초록, 서론/문헌고찰, 논의 등의 적절성)를 평가하는 항목도 있지만, 연구방법의 엄정성과 연구주제의 학문적 가치와 참신성, 기여도를 살펴보는 항목(연구주제 타당성, 연구결과/논문 기여도)도 있다. 특히 후자의 항목들은 연구의 독창성 및 엄정성과

함께 학문적·이론적·실용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담심리학이 지향하는 가치와 기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상담심리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문성과 정체성은 상담 관련 학술지가 지향하는 연구의 가치 및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담심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상담심리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상담심리 학문 분야의 정체성 및 다른 분야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논문(238편)을 가지고 상담심리 연구동향을 살펴본 조성호(2003)는 상담심리 연구가 성격 및 적응, 상담성과 연구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동일 학술지를 가지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484편)을 분석한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도 국내 상담심리 연구가 주로 성격 및 적응(36.8%)을 주제로 한 연구나 척도/도구개발(13.0%), 상담성과(10.8%)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박경애, 백지은(2017) 역시 같은 학술지를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219편)을 분석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성격 및 적응 연구(38%), 척도/도구개발(13%) 진로/직업 관련 연구(10%)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소속도 분석한 결과, 상담 현장의 실무자들보다는 주로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상담심리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제시하며 국내 상담심리 연구는 상담현장이 아닌 대학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그리고 연구대상과 관련해

서는 특정한 심리적 증상이나 정신병리가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 이는 연구자의 소속(대학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에게는 대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기에 가장 수고가 덜하고 용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김계원 등, 2011).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양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구방법에서의 편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계원 등, 2011; 조성호, 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함께 국내 상담심리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상담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국내 연구의 편중 현상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조남정 등, 2010). 이들은 “상담학연구”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711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자 소속은 국내대학교 소속이 가장 많으며, 연구주제는 성격 및 적응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고, 연구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87%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 상담심리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두 학술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내 상담심리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대학에 소속된 내담자들이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정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하기보다는 건강한 일반인(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응과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둔 양적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편중 현상은 상담심리 연구자들이 상담 현장의 다양한 실제 경험은 잘 반영하지 못하며 연구와 상담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어 연구 결과를 실제 상담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박경애, 백지은, 2017). 특히 국내 상담심리 연구에서 실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상담 과정과 효과를 주제로 하는 연구 수가 적은 점은 응용학문인 상담심리학이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 훈련과정을 지향하면서도 연구와 상담 실재를 연결하고 통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박경애, 백지은, 2017). 또한, 상담심리학의 대표적인 국외 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의 연구동향(Buboltz et al., 1999)과 국내 상담심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상담과정 및 상담성공에 대한 연구가 국내 상담심리 연구에서 현저히 비율이 낮아 두 유형의 연구가 상담심리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난이도가 높고 연구 수행 편의성은 낮다는 이유로 국내 상담심리 연구에서는 기피되어 왔을 가능성을 선행연구자들은 지적하였다(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 그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들은 상담심리 연구가 지나치게 양적 연구에만 치중해 온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상담심리학 연구의 다양화, 질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과 혼합 연구가 늘어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계원 등, 2011).

그러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심리 연구동향을 파악한 연구는 2016년에 게재된 논문까지 분석한 박경애, 백지은(2017)의 연구 이후로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최근 상담심

리학 연구는 이러한 연구 편중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지적이 반영되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고 여겨진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연구자 소속,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편중현상이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더욱 심각해졌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상담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성찰과 함께 도전과제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8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특성을 연구주제, 연구자 소속,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시기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먼저 2015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논문 투고와 심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KCI 인용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연도별 논문 인용지수는 2010년 2,731회에서 2015년 959회, 2017년 720회 등으로 급감하기 시작한다. 학술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중 인용지수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인용지수가 급감했다는 사실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2015년 이후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전 동향연구(박경애, 백지은, 2017)와 분석 대상이 일부 중복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소속,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연구주제의 경우에도 이들의 연구보다 항목을 추가하여 주제를 분류하고, 세부주제 역시 분

석하여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유사하게, 동일한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조성호(2003)은 1988년에서 2003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김계원 등(2011)은 2000년에서 2009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박경애, 백지은(2017)은 2012년에서 2016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시기가 중복되는 양상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논문의 특성도 함께 분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 투고시기에 따른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는 시대와 맥락의 흐름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특별호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 상담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고자 2019년도는 다문화 관련 주제로 원고를 모집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하여 2020년도에는 기술의 변화(IT, 인공지능, VR, 빅데이터 등)와 상담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화(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양극화, 자살, 학대, 청년세대의 어려움 등)에 따른 상담을 다뤘다. 또한, 2020년에는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가 발표되면서 상담심리의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상담심리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상담심리라는 주제, 2022년에는 비대면 상담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통적 상담에서부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상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상담심리학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변화·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연구 동향에 반영되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8년간의 동향 및 연도별 특성을 분석하며 상담심리학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점검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상담심리학자의 전문성과 정체성 발달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심리학 분야가 국민의 심리건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심리학자의 전문성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최근 8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최근 8년간 게재된 논문의 연도별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되어 게재된 총 450편 논문의 초록이다. 이 학술지는 상담심리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로, 40,000명이 넘는 연구자 및 실무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되고 발표된 논문들이 상담심리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정자

본 연구의 평정자는 상담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5명이었다. 평정자 5인은 다양한 주제의 상담심리 연구(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진로, 다양성과 사회정의, 도구 개발 등)를 수행하였으며,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과 같은 동향 연구를 출판한 경험이 있다.

평정절차

게재 논문 초록의 평정은 게재논문 자료 수집, 평정기준안 개발, 평정자 훈련, 독립 평정, 교차 검토 및 확정의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평정을 위한 자료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JAMS에 탑재되어 있는 게재 논문의 정보를 공동 저자 중 1인이 정리하여 준비하였다. 자료에는 논문제목, 논문 초록, 저자소속, 투고연도가 포함되었다, 중복되어 있는 논문은 제외하고 정보가 누락된 논문은 출판된 원문을 참고하여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 450편의 자료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평정 기준안은 조성호(2003), 김계원 등(2011), 박경애와 백지은(2017)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동향연구를 기초로 하고, 게재논문을 검토하면서 보다 세분화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범주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 기간의 연구 동향과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김계원 등, 2011)이 있으므로 가능한 기존 평정기준을 따르되, 연구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범주 혹은 내용이 있는 경우 세

분화하였다.

평정자 훈련을 위해서 평정자 5인은 평정 기준안의 범주와 내용에 대해 숙지한 후, 동일한 게재논문 10편에 대해 독립 평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논문 초록에 대해 2인의 평정자를 배정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평정한 후 교차검토를 실시하였다. 두 평정자간 불일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평정자간 논의를 거쳐 합의하고 이를 다른 평정자들과 공유하였다. 만약 평정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평정자가 논의하여 평정을 결정하였다.

분류기준과 내용

본 연구의 평정에는 기초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의 4개 영역, 14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기초정보 영역은 투고연도, 저자소속의 2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경우 연령대, 소수자정체성, 특정역할로 세분화하여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연구방법에는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자료의 유형, 방법론, 양적분석방법, 질적분석방법의 4개 범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의 경우 해당 논문의 주요 연구주제를 1차 범주로 하고, 이 중 특히 빈도가 높았던 3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소주제 분류를 추가로 진행하여 총 4개의 범주가 해당되었다.

기초 정보

기초 정보에는 투고 연도와 저자 소속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투고 연도는 JAMS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저자 소속의 분류는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수정·보완 사항으로, 먼저 국내 대학 소속에 국외 대학을 추가하였으며, 최근 상담전문가들의 직무환경 다양화를 반영하여 상담기관을 지역사회 기반 센터, 정부지원 기관, 기업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소속된 저자들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중고교 및 교육(지원)청을 추가하였다.

① 국내 대학교: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 연구원, 학생 등을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② 국외 대학교: 한국 이외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 연구원, 학생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③ 상담센터/병원: 대학상담센터,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사설 상담센터 및 병원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하였다.

④ 정부지원 상담기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도, 시, 구 단위의 상담기관을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시립 혹은 구립 상담센터, Wee Cente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⑤ 기업: 기업에 소속된 저자가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⑥ 초중고등학교: 저자의 소속이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 소속된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⑦ 교육(지원)청: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은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⑧ 정부지원 연구기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중심 기관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평정은 연령대, 소수자정체성, 역할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에서는 Buboltz et al.(1999)이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발달단계, 소속집단, 상담장면에서의 역할, 직업군 등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류하였으나, 이 경우 항목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중첩된다는(예: 성소수자 청소년, 다문화 내담자)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대와 소수자 정체성을 반영하는 소속집단, 상담관계와 직업적 환경에서의 역할 세 범주를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다만, 범주들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1) 연령대

① 아동: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② 청소년: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14-19세 청소년이 이에 해당하였다.

③ 대학(원)생: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④ 성인: 연구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기술한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⑤ 중/노년: 중년 혹은 노년을 연구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분류하였다.

⑥ 부부/연인 쌍: 부부 혹은 연인 쌍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⑦ 부모자녀 쌍: 부모와 자녀 쌍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⑧ 기타: 연령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혹은 여러 연령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⑨ 해당 없음: 연구대상이 이론이나 선행연구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2) 소수자 정체성

① 다문화: 인종, 민족, 국적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유학생, 이주자, 탈북민, 난민,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②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하였다.

③ 여성: 일반 여성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④ 신체/정신장애인: 신체 장애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연구대상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⑤ 기타: 위 내용들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으로, 남성,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⑥ 해당 없음: 연구 대상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3) 상담관계와 직업적 환경에서의 역할

① 내담자: 상담 장면의 내담자가 연구대상인 경우 이로 분류하였다. 임상적 필요에 의해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만 포함하였으며,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집된 경우에는 내담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② 상담자: 상담 전공의 대학원생, 상담 수련생, 상담 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상담교사, 놀이치료사 등은 상담자로 분류하였다.

③ 내담자+상담자: 내담자와 상담자 쌍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④ 군인: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⑤ 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사와 보육 교사가 이에 해당하였다.

⑥ 기타: 군인 혹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군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의료진, 종교인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⑦ 해당 없음: 연구 대상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에는 자료 유형, 연구방법론, 양적 분석방법, 질적분석방법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범주의 분류는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 조성호, 2003)를 참고하였으며, 최근 연구방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1) 자료 유형

① 연구자 수집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② 패널 자료: 기존에 수집되어 공개된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③ 기존연구결과: 연구 자료가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론적 고찰 연구나 양적 혹은 질적 메타 분석 연구 등을 포함하였다.

④ 기타: 법령이나 해외사례 등을 자료로 한 연구들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자연어 처리를 사용한 연구들도 기타로 분류되었다.

2) 연구방법론

① 양적방법론: 수량화된 자료를 사용한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② 질적방법론: 내러티브 자료 등 질적인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③ 혼합방법론: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이 함께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며, 델파이연구, 개념도연구방법, Q 방법론도 혼합방법론으로 분

류하였다.

④ 고찰: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고찰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⑤ 기타: 선행연구가 아닌 법령, 규정, 제도,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경우 고찰이 아닌 기타로 분류하였다.

3) 양적분석방법

양적분석방법은 변량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개념도연구법, 중단분석, 비모수분석, 메타분석, 기타의 9개 항목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경우 유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항목으로 포함시켰는데, 예를 들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잠재평균분석은 변량분석으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모형검증은 회귀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분석으로, 하위 유형을 탐색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분석으로 포함시켰다. 개념도연구법의 경우,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혼합방법론을 사용하나 자료의 분석 자체는 다차원적도법과 군집분석이라는 두 개의 양적분석법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양적분석방법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여러 분석이 사용된 경우에는 주요 연구문제를 분석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빈도분석, 빅데이터 분석, 델파이연구, Q방법론 등이 포함되었다.

4) 질적분석방법

질적방법론에는 현상학적 방법, 근거이론, 합의적 질적연구, 내러티브 탐구, 사례분석, 내용분석, 문화기술지, 질적메타분석, 기타, 명시하지 않음의 10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타 항목은 주제분석, 델파이연구, Q방법론 등을 포함하였다.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고 기술되

어 있으나 분석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와 소주제 분류

연구주제의 분류는 선행연구들(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 Buboltz et al., 1999)이 매우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박경애와 백지은(2017)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13개의 항목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체 논문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류를 실시하여 소주제를 살펴보았다. 세 주제는 상담자 특성/훈련/수퍼비전, 성격과 적응, 검사도구개발이었으며, 소주제의 분류 기준은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박경애, 백지은, 2017) 분석 대상이 된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귀납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1) 연구주제

① 상담성과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상담과정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의 효과에 대한 보고 없이, 상담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로, 작업동맹과 같은 치료적 관계에 초점을 둔 논문들이 주로 이에 해당하였다.

③ 상담과정 및 성과연구: 상담과정 요소와 상담성과 요소를 함께 살펴본 논문으로, 예를 들어 치료적 관계 강도가 상담성고를 예측하는지 검증한 논문들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④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수퍼비전 연구: 상

담자 특성, 교육 및 훈련, 수퍼비전 등을 다룬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주제는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소주제 분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었다.

⑤ 상담 및 심리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내담자나 일반인들이 상담자나 상담 및 심리서비스에 대해 가진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⑥ 다양성: 다문화 혹은 사회정의 상담을 주요 주제로 하는 논문들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혹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주류 문화권 사람들의 태도 등을 다룬 연구들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정 혹은 성과 연구들은 앞서 언급된 ①-③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상담자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나 경험을 다룬 연구는 ④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⑦ 성격과 적응: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차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소주제 분류를 통해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⑧ 학업적 성취: 대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와 성취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들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⑨ 진로 및 직업: 전생애에 걸친 진로발달을 다룬 논문들로, 진로 흥미, 직업 선택, 직업 적응, 직무 스트레스 등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단 진로상담의 경우 앞서 언급된 ①-③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상담자의 직업적 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는 ④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소수자 집단의 진로발달 특수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⑥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⑩ 검사도구개발: 심리측정 도구 및 검사

개발 및 타당화 논문이 이에 해당하며, 도구의 내용이 성격이나 진로를 다루고 있는 경우라도 주요 목적이 도구 개발이므로 도구가 측정하는 내용의 영역에 관계없이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항목 역시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소주제 분류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⑪ 개관: 상담심리학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동향분석, 양적 및 질적 메타분석을 사용한 연구들을 포함하였으며, 내용이 다른 주제에 해당하더라도 개관으로 분류하였다.

⑫ 이론개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주제인 논문으로, 기존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이나 틀을 제시한 경우에만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⑬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다룬 논문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박경애, 백지은, 2017)의 경우 연구방법론의 차별성을 강조한 연구, 제목에 포함시킨 연구 등도 연구방법론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구방법론의 소개와 적용이 주요 주제인 논문만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⑭ 기타: 위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아닌 심리교육 혹은 자조기술 훈련의 효과를 살펴본 논문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성과 연구와 구분되므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상담관련 법규 및 자격제도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 역시 개관이나 이론개발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상담자 특성, 훈련 및 슈퍼비전 연구

소주제

① 상담자 경험: 상담자의 직업적 경험을 주제로 다루는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문화 상담 경험이나 상담관계에서의 경험 등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② 상담자 특성: 상담자의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가 주요 주제인 논문들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③ 상담자 훈련: 상담자 교육, 훈련, 수련을 주제로 다룬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단 슈퍼비전을 다룬 연구는 ⑥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④ 상담자 인식: 특정 주제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다룬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⑤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차이를 주요 주제로 하는 논문들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초심 상담자, 초심 슈퍼바이저의 발달적 특성을 주제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⑥ 슈퍼비전: 연구 주제가 슈퍼비전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셀프 슈퍼비전을 주제로 한 논문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⑦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실시한 학회원 현황조사 및 요구조사 등이 기타로 분류되었다.

3) 성격과 적응 연구 소주제

① 성격: 성격적 특성이 주요 주제인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완벽주의나 자기에가 그 예이다.

② 정서: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표현 등 정서처리과정을 다룬 논문을 이 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③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주요 주제로 한 논문으로,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에 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되었다. 다만 외상적 스트레스는 ⑧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④ 중독과 남용: 물질 혹은 비물질 중독이나 남용을 다룬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⑤ 정신장애 및 경향성: 정신장애나 정신장애 경향성을 주요 주제로 한 논문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성격장애, 사고장애, 발달장애, ADHD, 섭식장애 등의 정신장애 진단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단 진단적 수준이 아닌 상태적 경험으로서의 우울이나 사회불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⑥ 가족관련: 원가족이나 현재의 가족 관계가 주요 관심사인 논문들로,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부모화와 같은 주제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⑦ 가족외 대인관계 관련: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를 주요하게 다룬 논문들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⑧ 외상과 외상후 성장: 외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성장 등을 다루는 연구들을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⑨ 긍정심리: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한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성격적 특성 중 자아탄력성, 성격 강점은 ①이 아닌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자기자비, 영성, 안녕감과 같은 주제 역시 긍정심리로 분류하였다.

⑩ 자살 및 자해: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사고나 행동을 다룬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⑪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본 논문은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⑫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특성이나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한 논문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4) 검사도구개발 연구 소주제

① 국외 검사도구 번안 타당화: 국외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한 논문들이 이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② 한국형 검사도구 개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검사도구를 개발한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문항개발과정에서 기존 도구를 참고하였더라도 새롭게 재구성한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사용하여 투고되어 게재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논문 기본 정보와 초록을 평정한 결과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게재논문의 기초 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에 있어서 연도별로 어떠한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초 정보

먼저 연도에 따른 게재 논문의 편수는 그림 1과 같다. 전체 게재된 논문의 수는 450편이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2021년에 전년 대비 66.2%(2020년 71편, 2021년 47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만 2022년에는 63편이 게재되어 게재 편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게재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은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399편, 88.7%), 그다음으로 대학 및 지역사회 상담센터 및 병원에 소속된 경우가 많았다(22편, 4.9%). 이들과 정부지원 상담기관(15편, 3.2%) 및 기업(5편, 1.1%)을 합치면 전체 게재논문의 약 10%가 상담실무기관에 소속된 저자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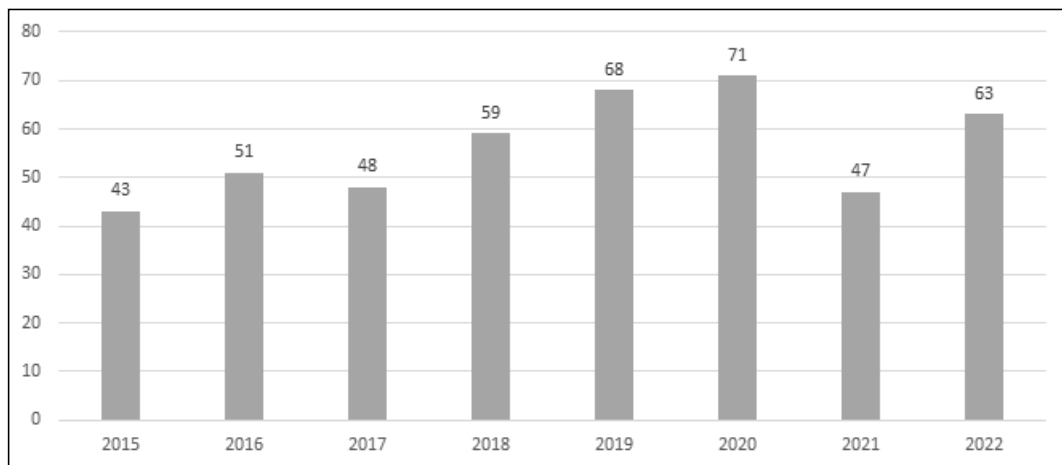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게재논문 편수

표 1. 제1저자 소속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국내대학 | 39 (90.7%) | 43 (84.3%) | 45 (93.8%) | 52 (88.1%) | 64 (94.1%) | 61 (85.9%) | 39 (83.0%) | 56 (88.9%) | 399 (88.7%) |
| 국외대학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1.4%) | 0 (0.0%) | 0 (0.0%) | 1 (0.2%) |
| 상담센터 /병원 | 1 (2.3%) | 3 (5.9%) | 2 (4.2%) | 3 (5.1%) | 2 (2.9%) | 3 (4.2%) | 4 (6.3%) | 4 (6.3%) | 22 (4.9%) |
| 정부지원 상담기관 | 3 (7.0%) | 2 (3.9%) | 1 (2.1%) | 1 (1.7%) | 2 (2.9%) | 3 (4.2%) | 1 (2.1%) | 2 (3.2%) | 15 (3.3%) |
| 기업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2.8%) | 2 (4.3%) | 1 (1.6%) | 5 (1.1%) |
| 초중고교 | 0 (0.0%) | 1 (2.0%) | 0 (0.0%) | 3 (5.1%) | 0 (0.0%) | 0 (0.0%) | 1 (2.1%) | 0 (0.0%) | 5 (1.1%) |
| 교육(지원)청 | 0 (0.0%) | 1 (2.0%) | 0 (0.0%) | 0 (0.0%) | 0 (0.0%) | 1 (1.4%) | 0 (0.0%) | 0 (0.0%) | 2 (0.4%) |
| 정부지원 연구기관 | 0 (0.0%) | 1 (2.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0.2%) |
| 전체 | 43 (100.0%) | 51 (100.0%) | 48 (100.0%) | 59 (100.0%) | 68 (100.0%) | 71 (100.0%) | 47 (100.0%) | 63 (100.0%) | 450 (100.0%) |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기업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이 2020년 이후부터 게재되고 있으며, 반면 초중고교 저자의 논문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제1저자 소속 빈도 양상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연령대, 소수자 정체성, 역할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연령, 소수자 정체성, 역할을 최근 8년의 전체 경향과 함께 연도별로 살펴보았다(표 2).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먼저 살펴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212편, 4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2편, 24.9%)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1.1%)이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소수자 정체성에 따른 비교를 살펴보면, 최근 8년간 전체 게재논문 중 14.4%(65편)만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연구대상은 여성으로 총 28편으로, 전체 소수자 대상 연구 65편 중 43.1%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남성,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대상의 연구가 21편

표 2. 연구대상의 특징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연령대 | | | | | | | | | |
| 아동 | 1 (2.3%) | 1 (2.0%) | 2 (4.2%) | 0 (0.0%) | 0 (0.0%) | 1 (1.4%) | 0 (0.0%) | 0 (0.0%) | 5 (1.1%) |
| 청소년 | 3 (7.0%) | 3 (5.9%) | 7 (14.6%) | 1 (1.7%) | 4 (5.9%) | 5 (7.0%) | 8 (17.0%) | 0 (0.0%) | 31 (6.9%) |
| 대학(원)생 | 14 (32.6%) | 17 (33.3%) | 12 (25.0%) | 15 (25.4%) | 17 (25.0%) | 22 (31.0%) | 8 (17.0%) | 7 (11/1%) | 112 (24.9%) |
| 성인 | 19 (44.2%) | 20 (39.2%) | 18 (37.5%) | 31 (52.5%) | 24 (35.3%) | 31 (43.7%) | 25 (53.2%) | 44 (69.8%) | 212 (47.1%) |
| 중노년 | 0 (0.0%) | 5 (9.8%) | 0 (0.0%) | 3 (5.1%) | 4 (5.9%) | 2 (2.8%) | 1 (2.1%) | 2 (3.2%) | 17 (3.8%) |
| 부부연인(쌍) | 2 (4.7%) | 1 (2.0%) | 0 (0.0%) | 1 (1.7%) | 0 (0.0%) | 2 (2.8%) | 0 (0.0%) | 1 (1.6%) | 7 (1.6%) |
| 부모자녀(쌍) | 0 (0.0%) | 0 (0.0%) | 1 (2.1%)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0.2%) |
| 기타 | 2 (4.7%) | 0 (0.0%) | 5 (10.4%) | 1 (1.7%) | 5 (7.4%) | 2 (2.8%) | 2 (4.3%) | 6 (9.5%) | 23 (5.1%) |
| 해당없음 | 2 (4.7%) | 4 (7.8%) | 3 (6.3%) | 7 (11.9%) | 14 (20.6%) | 6 (8.5%) | 3 (6.4%) | 3 (4.8%) | 42 (9.3%) |
| 소수자 정체성 | | | | | | | | | |
| 다문화 | 1 (2.3%) | 1 (2.0%) | 1 (2.1%) | 0 (0.0%) | 1 (1.5%) | 3 (4.2%) | 2 (4.3%) | 0 | 9 (2.0%) |
| 성소수자 | 0 (0.0%) | 0 (0.0%) | 1 (2.1%) | 0 (0.0%) | 4 (5.9%) | 0 (0.0%) | 1 (2.1%) | 1 (1.6%) | 7 (1.6%) |
| 여성 | 2 (4.7%) | 4 (7.8%) | 3 (6.3%) | 5 (8.5%) | 2 (2.9%) | 4 (5.6%) | 4 (8.5%) | 4 (6.3%) | 28 (6.2%) |
| 장애인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기타 | 3 (7.0%) | 4 (7.8%) | 2 (4.2%) | 4 (6.8%) | 2 (2.9%) | 2 (2.8%) | 2 (4.3%) | 2 (3.2%) | 21 (4.7%) |
| 해당없음 | 37 (86.0%) | 42 (82.4%) | 41 (85.4%) | 50 (84.7%) | 59 (86.8%) | 62 (87.3%) | 38 (80.9%) | 56 (88.9%) | 385 (85.6%) |

표 2. 연구대상의 특징 (계속)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상담관계와 직업적 환경에서의 역할 | | | | | | | | | |
| 내담자 | 1 (2.3%) | 2 (3.9%) | 0 (0.0%) | 1 (1.7%) | 2 (2.9%) | 3 (4.2%) | 1 (2.1%) | 0 (0.0%) | 10 (2.2%) |
| 상담자 | 7 (16.3%) | 5 (9.8%) | 4 (8.3%) | 13 (22.0%) | 11 (16.2%) | 6 (8.5%) | 10 (21.3%) | 11 (17.5%) | 67 (14.9%) |
| 내담자+ 상담자 | 2 (4.7%) | 1 (2.0%) | 1 (2.1%) | 0 (0.0%) | 1 (1.5%) | 0 (0.0%) | 0 (0.0%) | 0 (0.0%) | 5 (1.1%) |
| 군인 | 0 (0.0%) | 0 (0.0%) | 0 (0.0%) (2.1%) | 1 (1.7%) | 1 (1.5%) | 1 (1.4%) | 0 (0.0%) | 0 (0.0%) | 3 (0.7%) |
| 교사 | 1 (2.3%) | 1 (2.0%) | 1 (2.1%) | 2 (3.4%) | 0 (0.0%) | 0 (0.0%) | 0 (0.0%) | 0 (0.0%) | 5 (1.1%) |
| 기타 | 0 (0.0%) | 1 (2.0%) | 0 (0.0%) | 1 (1.7%) | 1 (1.5%) | 3 (4.2%) | 1 (2.1%) | 4 (6.3%) | 11 (2.4%) |
| 해당없음 | 32 (74.4%) | 41 (80.4%) | 42 (87.5%) | 41 (69.5%) | 52 (76.5%) | 58 (81.7%) | 35 (74.5%) | 48 (76.2%) | 349 (77.6%) |

게재되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소수자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비율은 2021년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한 역할을 가진 연구대상을 살펴본 논문은 101편으로 전체의 22.4%에 해당하였다. 먼저 내담자, 상담자, 혹은 내담자-상담자 쌍을 살펴본 논문이 82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7편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편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군인 3편, 교사 5편, 그 외 다양한 직종의 기타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11편이 있었다. 특정한 역할을 가진 연구대상을 다룬 논문의 비중이 2018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19년 이후 한 편도 게재되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연구방법: 자료 유형, 연구방법론,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게재논문의 연구방법의 특성은 자료 유형과 연구방법론,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자료 분류 결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405편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기존연구결과(31편, 6.9%), 패널 자료(4편, 0.9%), 법령, 해외 사례, 자연어 등을 자료로 한 기타 자료(10편,

표 3. 연구방법의 특성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자료유형 | | | | | | | | | |
| 연구자수집 | 40 (93.0%) | 47 (92.2%) | 44 (91.7%) | 50 (84.7%) | 54 (79.4%) | 65 (91.5%) | 44 (93.6%) | 61 (96.8%) | 405 (90.0%) |
| 패널자료 | 1 (2.3%) | 0 (0.0%) | 1 (2.1%) | 2 (3.4%) | 0 (0.0%) | 0 (0.0%) | 0 (0.0%) | 0 (0.0%) | 4 (0.9%) |
| 기존연구결과 | 2 (4.7%) | 4 (7.8%) | 3 (6.3%) | 4 (6.8%) | 11 (16.2%) | 3 (4.2%) | 2 (3.2%) | 2 (3.2%) | 31 (6.9%) |
| 기타 | 0 (0.0%) | 0 (0.0%) | 0 (0.0%) | 3 (5.1%) | 3 (4.4%) | 3 (4.2%) | 0 (0.0%) | 0 (0.0%) | 10 (2.2%) |
| 전체 | 43 (100.0%) | 51 (100.0%) | 48 (100.0%) | 59 (100.0%) | 68 (100.0%) | 71 (100.0%) | 47 (100.0%) | 63 (100.0%) | 450 (100.0%) |
| 연구방법론 | | | | | | | | | |
| 양적 | 29 (67.4%) | 43 (84.3%) | 39 (81.3%) | 41 (69.5%) | 39 (57.4%) | 58 (81.7%) | 34 (72.3%) | 42 (66.7%) | 325 (72.2%) |
| 질적 | 8 (18.6%) | 5 (9.8%) | 6 (12.5%) | 11 (18.6%) | 13 (19.1%) | 10 (14.1%) | 11 (23.4%) | 11 (17.5%) | 75 (16.7%) |
| 혼합 | 4 (9.3%) | 2 (3.9%) | 1 (2.1%) | 1 (1.7%) | 4 (5.9%) | 0 (0.0%) | 2 (4.3%) | 7 (11.1%) | 21 (4.7%) |
| 고찰 | 2 (4.7%) | 1 (2.0%) | 2 (4.2%) | 4 (6.8%) | 11 (16.2%) | 2 (4.3%) | 0 (0.0%) | 3 (4.8%) | 25 (5.6%) |
| 기타 | 0 (0.0%) | 0 (0.0%) | 0 (0.0%) | 2 (3.4%) | 1 (1.5%) | 1 (1.4%) | 0 (0.0%) | 0 (0.0%) | 4 (0.9%) |
| 전체 | 43 (100.0%) | 51 (100.0%) | 48 (100.0%) | 59 (100.0%) | 68 (100.0%) | 71 (100.0%) | 47 (100.0%) | 63 (100.0%) | 450 (100.0%) |
| 양적분석 | | | | | | | | | |
| 변량분석 | 2 (6.1%) | 6 (13.3%) | 5 (12.5%) | 3 (7.1%) | 4 (9.3%) | 3 (5.2%) | 0 (0.0%) | 8 (16.3%) | 31 (9.0%) |
| 회귀분석 | 21 (63.6%) | 25 (55.6%) | 24 (60.0%) | 27 (64.3%) | 22 (51.2%) | 38 (65.5%) | 20 (55.6%) | 24 (49.0%) | 201 (58.1%) |
| 요인분석 | 5 (15.2%) | 7 (15.6%) | 7 (17.5%) | 5 (11.9%) | 2 (4.7%) | 7 (12.1%) | 5 (13.9%) | 9 (18.4%) | 47 (13.6%) |
| 군집분석 | 0 (0.0%) | 1 (2.2%) | 1 (2.5%) | 3 (7.1%) | 3 (7.0%) | 4 (6.9%) | 4 (11.1%) | 1 (2.0%) | 17 (4.9%) |
| 개념도연구법 | 2 (6.1%) | 1 (2.2%) | 0 (0.0%) | 0 (0.0%) | 3 (7.0%) | 0 (0.0%) | 2 (5.6%) | 2 (4.1%) | 10 (2.9%) |

표 3. 연구방법의 특성 (계속)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양적분석 | | | | | | | | | |
| 종단분석 | 0 (0.0%) | 2 (4.4%) | 0 (0.0%) | 0 (0.0%) | 2 (4.7%) | 0 (0.0%) | 1 (2.8%) | 1 (2.0%) | 6 (1.7%) |
| 비모수분석 | 0 (0.0%) | 0 (0.0%) | 1 (2.5%)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0.3%) |
| 메타분석 | 0 (0.0%) | 3 (6.7%) | 1 (2.5%) | 1 (2.4%) | 3 (7.0%) | 1 (1.7%) | 1 (2.8%) | 0 (0.0%) | 10 (2.9%) |
| 기타 | 3 (9.1%) | 0 (0.0%) | 1 (2.5%) | 3 (7.1%) | 4 (9.3%) | 5 (8.6%) | 3 (8.3%) | 4 (8.2%) | 23 (6.6%) |
| 전체 | 33 (100.0%) | 45 (100.0%) | 40 (100.0%) | 42 (100.0%) | 43 (100.0%) | 58 (100.0%) | 36 (100.0%) | 49 (100.0%) | 346 (100.0%) |
| 질적분석 | | | | | | | | | |
| 현상학 | 1 (10.0%) | 1 (16.7%) | 2 (28.6%) | 3 (25.0%) | 5 (35.7%) | 1 (10.0%) | 3 (27.3%) | 5 (31.3%) | 21 (24.4%) |
| 근거이론 | 4 (40.0%) | 1 (16.7%) | 1 (14.3%) | 2 (16.7%) | 2 (14.3%) | 2 (20.0%) | 2 (18.2%) | 0 (0.0%) | 14 (16.3%) |
| 합의적 질적연구 | 3 (30.0%) | 2 (33.3%) | 2 (28.6%) | 4 (33.3%) | 2 (14.3%) | 2 (20.0%) | 5 (45.5%) | 5 (31.3%) | 25 (29.1%) |
| 내러티브탐구 | 0 (0.0%) | 0 (0.0%) | 0 (0.0%) | 1 (8.3%) | 0 (0.0%) | 1 (10.0%) | 0 (0.0%) | 1 (6.3%) | 3 (3.5%) |
| 사례분석 | 0 (0.0%) | 0 (0.0%) | 1 (14.3%) | 0 (0.0%) | 2 (14.3%) | 0 (0.0%) | 0 (0.0%) | 0 (0.0%) | 3 (3.5%) |
| 내용분석 | 0 (0.0%) | 1 (16.7%) | 0 (0.0%) | 1 (8.3%) | 0 (0.0%) | 0 (0.0%) | 0 (0.0%) | 1 (6.3%) | 3 (3.5%) |
| 문화기술지 | 0 (0.0%) | 0 (0.0%) | 1 (14.3%)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1.2%) |
| 질적메타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6.3%) | 0 (0.0%) | 1 (1.2%) |
| 기타 | 2 (20.0%) | 0 (0.0%) | 0 (0.0%) | 1 (8.3%) | 2 (14.3%) | 4 (40.0%) | 0 (0.0%) | 4 (25.0%) | 13 (15.1%) |
| 명시하지 않음 | 0 (0.0%) | 1 (16.7%) | 0 (0.0%) | 0 (0.0%) | 1 (7.1%) | 0 (0.0%) | 0 (0.0%) | 0 (0.0%) | 2 (2.3%) |
| 전체 | 10 (100.0%) | 6 (100.0%) | 7 (100.0%) | 12 (100.0%) | 14 (100.0%) | 10 (100.0%) | 11 (100.0%) | 16 (100.0%) | 86 (100.0%) |

2.2%)를 사용한 논문들이 있었다. 연도에 따른 자료 유형 양상을 살펴보면, 기존연구결과에 기반한 연구의 비율이 2019년(16.2%)에 가장 높았으며, 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2019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 연구자 수집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게재된 논문에 사용된 연구방법론을 살펴보면, 전체 450편 중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72.2%(325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질적방법론 사용 논문이 16.7%(75편), 혼합방법론 사용 논문이 4.7%(21편)로 나타났다. 그 외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고찰한 논문은 25편(5.6%)이었으며, 선행연구가 아닌 기타 자료를 검토한 논문들도 4편이 있었다. 질적방법론의 경우 2021년에, 혼합방법론의 경우 2022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양적방법론의 경우 연도에 관계없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분석으로 나누어 각기 살펴보았다. 먼저 양적 분석이 사용된 논문은 총 346편으로 전체의 76.9%에 해당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양적 분석은 회귀분석(상관, 회귀, 매개 및 조절, 구조방정식 분석 포함)으로 전체 양적 분석 논문의 58.1%(201/346편)에 해당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요인분석(47/346편, 13.6%), 변량분석(31/346편, 9.0%), 군집분석(17/346편, 4.9%), 메타분석(10/346편, 2.9%), 개념도연구법(10/346편, 2.9%), 중단분석(6/346편, 1.7%), 비모수분석(1/346편,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도 분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기타 연구도 23편이 포함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회귀 분석, 요인분석, 변량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회귀분석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대신 요인분석과 변량분석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질적분석이 분석, Q방법론 등이 포함된 기타 연구는 13편이었으며, 정확한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도 2편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도에서 합의적질적연구방법과 현상학적 방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근거이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주제

마지막으로 투고기간에 따라 연구주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4).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는 성격과 적응으로 213편(47.3%)이었으며, 다음으로 상담자(50편, 11.1%), 검사도구개발(45편, 10.0%)이었다. 상담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도 상담성과(16편), 상담과정(9편), 상담성과및과정(6편)을 합쳐 31편(6.9%)이 있었으며, 개관(30편, 6.7%), 진로직업(26편, 5.8%), 다양성(25편, 5.6%)이 그다음이었다. 한편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연도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성격과 적응이 연도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상담성과, 상담과정, 상담성과및과정을 다룬 논문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2019년 이후 그 비중이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전체 연구의 10% 이상의 빈도를 보인 세 연구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주제에 대한 소분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담자를 주제로 다룬 총 50편의 논문 중 가

표 4. 연구주제의 특징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연구주제 | | | | | | | | | |
| 상담성과 | 2 (4.7%) | 5 (9.8%) | 3 (6.3%) | 2 (3.4%) | 2 (2.9%) | 1 (1.4%) | 0 (0.0%) | 1 (1.6%) | 16 (3.6%) |
| 상담과정 | 2 (4.7%) | 1 (2.0%) | 1 (2.1%) | 0 (0.0%) | 2 (2.9%) | 2 (2.8%) | 0 (0.0%) | 1 (1.6%) | 9 (2.0%) |
| 상담성과과정 | 2 (4.7%) | 1 (2.0%) | 0 (0.0%) | 1 (1.7%) | 2 (2.9%) | 0 (0.0%) | 0 (0.0%) | 0 (0.0%) | 6 (1.3%) |
| 상담자 | 4 (9.3%) | 4 (7.8%) | 3 (6.3%) | 11 (18.6%) | 8 (11.8%) | 6 (8.5%) | 6 (12.8%) | 8 (12.7%) | 50 (11.1%) |
| 심리서비스인식 | 2 (4.7%) | 2 (3.9%) | 0 (0.0%) | 1 (1.7%) | 0 (0.0%) | 2 (2.8%) | 3 (6.4%) | 3 (4.8%) | 13 (2.9%) |
| 다양성 | 2 (4.7%) | 1 (2.0%) | 0 (0.0%) | 0 (0.0%) | 9 (13.2%) | 5 (7.0%) | 4 (8.5%) | 4 (6.3%) | 25 (5.6%) |
| 성격과적응 | 17 (39.5%) | 24 (47.1%) | 27 (56.3%) | 27 (45.7%) | 25 (36.8%) | 38 (53.5%) | 25 (53.2%) | 30 (47.6%) | 213 (47.3%) |
| 학업적성취 | 0 (0.0%) | 0 (0.0%) | 0 (0.0%) | 1 (1.7%) | 2 (2.9%) | 0 (0.0%) | 0 (0.0%) | 0 (0.0%) | 3 (0.7%) |
| 진로직업 | 4 (9.3%) | 4 (7.8%) | 3 (6.3%) | 4 (6.8%) | 2 (2.9%) | 6 (8.5%) | 2 (4.3%) | 1 (1.6%) | 26 (5.8%) |
| 검사도구개발 | 5 (11.6%) | 6 (11.8%) | 7 (14.6%) | 5 (8.5%) | 2 (2.9%) | 6 (8.5%) | 5 (10.6%) | 9 (14.3%) | 45 (10.0%) |
| 개관 | 2 (4.7%) | 3 (5.9%) | 3 (6.3%) | 4 (6.8%) | 11 (16.2%) | 3 (4.2%) | 2 (4.3%) | 2 (3.2%) | 30 (6.7%) |
| 이론개발 | 1 (2.3%) | 0 (0.0%) | 0 (0.0%) | 0 (0.0%) | 1 (1.5%) | 0 (0.0%) | 0 (0.0%) | 0 (0.0%) | 2 (0.4%) |
| 연구방법론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기타 | 0 (0.0%) | 0 (0.0%) | 1 (2.1%) | 3 (5.1%) | 2 (2.9%) | 2 (2.8%) | 0 (0.0%) | 4 (6.3%) | 12 (2.7%) |
| 전체 | 43 (100.0%) | 51 (100.0%) | 48 (100.0%) | 59 (100.0%) | 68 (100.0%) | 71 (100.0%) | 47 (100.0%) | 63 (100.0%) | 450 (100.0%) |

표 4. 연구주제의 특징

(계속 1)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상담자 연구 소주제 | | | | | | | | | |
| 상담자경험 | 2 (50.0%) | 2 (50.0%) | 1 (33.3%) | 4 (36.4%) | 1 (12.5%) | 3 (50.0%) | 2 (33.3%) | 0 (0.0%) | 15 (30.0%) |
| 상담자특성 | 1 (25.0%) | 1 (25.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25.0%) | 4 (8.0%) |
| 상담자훈련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12.5%) | 1 (2.0%) |
| 상담자인식 | 1 (25.0%) | 1 (25.0%) | 0 (0.0%) | 2 (18.2%) | 2 (25.0%) | 1 (16.7%) | 0 (0.0%) | 5 (62.5%) | 12 (24.0%) |
| 상담자발달 | 0 (0.0%) | 0 (0.0%) | 0 (0.0%) | 1 (9.1%) | 2 (25.0%) | 0 (0.0%) | 2 (33.3%) | 0 (0.0%) | 5 (10.0%) |
| 수퍼비전 | 0 (0.0%) | 0 (0.0%) | 2 (66.7%) | 4 (36.4%) | 1 (12.5%) | 1 (16.7%) | 2 (33.3%) | 0 (0.0%) | 10 (20.0%) |
| 기타 | 0 (0.0%) | 0 (0.0%) | 0 (0.0%) | 0 (0.0%) | 2 (25.0%) | 1 (16.7%) | 0 (0.0%) | 0 (0.0%) | 3 (6.0%) |
| 전체 | 4 (100.0%) | 4 (100.0%) | 3 (100.0%) | 11 (100.0%) | 8 (100.0%) | 6 (100.0%) | 6 (100.0%) | 8 (100.0%) | 50 (100.0%) |
| 성격과적응 연구 소주제 | | | | | | | | | |
| 성격 | 0 (0.0%) | 0 (0.0%) | 0 (0.0%) | 0 (0.0%) | 2 (8.0%) | 5 (13.2%) | 3 (12.0%) | 2 (6.7%) | 12 (5.6%) |
| 정서 | 4 (23.5%) | 4 (16.7%) | 2 (7.4%) | 4 (14.8%) | 2 (8.0%) | 3 (7.9%) | 2 (8.0%) | 3 (10.0%) | 24 (11.3%) |
| 스트레스 | 0 (0.0%) | 1 (4.2%) | 0 (0.0%) | 2 (7.4%) | 3 (12.0%) | 1 (2.6%) | 1 (4.0%) | 2 (6.7%) | 10 (4.7%) |
| 중독남용 | 3 (17.6%) | 0 (0.0%) | 1 (3.7%) | 1 (3.7%) | 1 (4.0%) | 2 (5.3%) | 0 (0.0%) | 0 (0.0%) | 8 (3.8%) |
| 정신장애 (경향성) | 0 (0.0%) | 3 (12.5%) | 3 (11.1%) | 1 (3.7%) | 0 (0.0%) | 3 (7.9%) | 2 (8.0%) | 2 (6.7%) | 14 (6.6%) |
| 가족관련 | 2 (11.8%) | 4 (16.7%) | 6 (22.2%) | 6 (22.2%) | 4 (16.0%) | 3 (7.9%) | 4 (16.0%) | 6 (20.0%) | 35 (16.4%) |
| 가족외 대인관계 | 2 (11.8%) | 2 (8.3%) | 3 (11.1%) | 3 (11.1%) | 1 (4.0%) | 3 (7.9%) | 2 (8.0%) | 3 (10.0%) | 19 (8.9%) |

표 4. 연구주제의 특징 (계속 2)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체 |
|---------------|----------------|----------------|----------------|----------------|----------------|----------------|----------------|----------------|-----------------|
| 성격과적응 연구 소주제 | | | | | | | | | |
| 외상(후 장애 및 성장) | 4 (23.5%) | 7 (29.2%) | 7 (25.9%) | 7 (25.9%) | 4 (16.0%) | 7 (18.4%) | 4 (16.0%) | 5 (16.7%) | 45 (21.1%) |
| 긍정심리 | 1 (5.9%) | 0 (0.0%) | 3 (11.1%) | 2 (7.4%) | 1 (4.0%) | 3 (7.9%) | 5 (20.0%) | 2 (6.7%) | 17 (8.0%) |
| 자살자해 | 1 (5.9%) | 3 (12.5%) | 2 (7.4%) | 1 (3.7%) | 7 (28.0%) | 5 (13.2%) | 2 (8.0%) | 4 (13.3%) | 25 (11.7%) |
| 코로나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2 (5.3%) | 0 (0.0%) | 1 (3.3%) | 3 (1.4%) |
| 기타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2.6%) | 0 (0.0%) | 0 (0.0%) | 1 (0.5%) |
| 전체 | 17 (100.0%) | 24 (100.0%) | 27 (100.0%) | 27 (100.0%) | 25 (100.0%) | 38 (100.0%) | 25 (100.0%) | 30 (100.0%) | 213 (100.0%) |
| 검사도구개발 소주제 | | | | | | | | | |
| 척도변안 | 1 (20.0%) | 1 (16.7%) | 6 (85.7%) | 1 (20.0%) | 2 (100.0%) | 3 (50.0%) | 2 (40.0%) | 6 (66.7%) | 22 (48.9%) |
| 한국척도개발 | 4 (80.0%) | 5 (83.3%) | 1 (14.3%) | 4 (80.0%) | 0 (0.0%) | 3 (50.0%) | 3 (60.20%) | 3 (33.3%) | 23 (51.1%) |
| 전체 | 5 (100.0%) | 6 (100.0%) | 7 (100.0%) | 5 (100.0%) | 2 (100.0%) | 6 (100.0%) | 5 (100.0%) | 9 (100.0%) | 45 (100.0%) |

장 많이 다루어진 소주제는 특정한 상담자 경험을 다룬 것으로 15편(30.0%)이었다. 그 외 상담자 인식(12/50편, 24.0%), 슈퍼비전(11/50편, 20.0%)이 뒤를 이었다. 연도에 따른 양상을 보면, 상담자 인식을 다룬 연구가 2022년 5편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성격과 적응을 주제로 다룬 213편에 대해 소주제를 분류한 결과, 외상경험, 외상후스트레스, 외상후성장을 포함하는 외상관련 연구가 45편(2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관련(35/213편, 16.4%),

자살자해(25/213편, 11.7%), 정서(24/213편, 11.3%)이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도, 가족이외의 대인관계(19/213편, 8.9%), 긍정심리(17/213편, 8.0%), 정신장애 혹은 경향성(14/213편, 6.6%), 성격(12/213편, 5.6%), 스트레스(10/213편, 4.7%)를 다룬 연구들이 각 10편 이상에 해당하였다. 연도별 양상을 보면, 대부분 외상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자살자해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자살자해 연구 비율이 10% 내외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성격 관련 연구의 경우 2019년 이후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검사도구개발을 주제로 한 45편 논문의 소주제를 살펴본 결과, 검사도구 번안·타당화 논문이 22편(48.9%), 한국형 검사도구 개발 논문이 23편(51.1%)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한국형 도구개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상담심리학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8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논문의 연구자 소속별 분포를 제1저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자가 국내대학 소속인 경우가 88.7%로 대다수였다. 이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의 저자 소속을 살펴본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국내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해당 학술지에 게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대학 소속 연구자를 제외하면 대학 및 지역사회 상담센터, 병원, 정부지원 상담기관에 소속된 저자는 약 10%에 해당하여 상담실무기관 소속 저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상담심리학계가 과학자-실무자 모형과 실무자-학자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지향해야 할지 논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지만, 실무자-학자 모형은 실무자를 연구의 능동적인 주체보다는 과학적 지식의 활동에 초점을 두는 수동적인 독자 입장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상담실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 꾸준히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학자-실무자 모형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과학적 검증 결과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실무에서 활용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재된 논문의 연구대상별 연령 분포에서는 성인(47.1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생(24.9%)으로 나타났다. 1988년~2003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을 살펴본 선행연구(조성호, 2003)에는 연구대상자별 분포가 성인 27.11%, 대학생 39.79%로 보고되었다. 동일한 주제로 이후 시기의 연구대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 및 상담자/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별도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연구대상을 성인 대상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포함한다면 2000년~2009년에는 성인 32.2%, 대학생 37.0%(김계원 등, 2011)이며 2012년~2016년에는 성인 38%, 대학생 32%(박경애, 백지은, 2017)로 보고되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본 연구와 이전 시기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상담심리학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편중된 현상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낮추고 일반화를 저해한다는 지적(김계원 등, 2011; 이동혁, 유성경, 2000)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론별 분포에서는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 중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각각 81.9%(조성호, 2003)와 86.5%(김계원 등, 201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적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비율은 선행연구가 살펴본 기간(1988년~2009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적방법론 이외의 연구방법론 사용 논문의 증가 추세를 시사하였다.

연구주제면에서 성격과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성격과 적응을 주제로 한 게재논문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게재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적응과 성격은 1988년~2003년에 21.8%(조성호, 2003), 2000년~2009년에 36.8%(김계원 등, 2011), 2012년~2016년에 38%(박경애, 백지은, 20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성격과 적응을 주제로 한 논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에서 성격과 적응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특정 주제의 연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상담 과정 및 성과와 같이 직접적인 상담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상담자(11.1%), 검사 도구개발(10.0%)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지만(상담성과, 상담과정, 상담과정 및 성과를 모두 합산했을 때 6.9%)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 중 상담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1988년~2003년에 28.1%(조성호, 2003), 2000년~2009년에 19.5%(김계원 등, 2011), 2012년~2016년에 11%(박경애, 백지은, 2017)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가 다룬 시기별로 이 주제 논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동일한 상담심리학 영역의 해외 학술지인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에 해당 주제의 연구물이 전체 게재논문의 20%에 해당(2012년~2016년; 박경애, 백지은, 2017)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 관련 주제 논문의 비율은 상담심리학 전문 학술지로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담과정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상담심리학 연구에서 연구와 실제의 괴리가 커짐을 반영할 수 있기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제언은 아래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에서 더 자세히 밝히겠다.

둘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 특징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자의 소속 측면에서 기업에 소속된 저자의 논문이 2020년 이후부터 게재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기업상담이 상담의 한 전문분야로 자리 잡으면서(백은정, 신효정, 2022) 기업에 소속된 상담실무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의 논문게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은 기업에 소속된 상담자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달리 저자가 초중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학문적 정체성이 명확해지면서 초중고 소속 연구자인 교사의 논문이 특별히 상담심리학적 시사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교육학 영역의 학술지 또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와 같이 초중고 연구에 더욱 부합하는 학술지로 투고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에 따라 논문이 다룬 연구대상자의 역할에서도 변화가 발견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내담자를 포함(내담자, 내담자-상담자 쌍)한 논문의 비율은 상담심리학 학술지로서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3.3%) 특히 내담자-상담자 쌍을 다룬 연구는 2020년 이후에는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앞서 상담 관련 주제의 연구물 비율이 해외 저널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논의한 바 있는데, 내담자를 포함한 연구의 게재 편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앞서 논의한 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 이동혁, 유성경, 2000; 조남정 등, 2010)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상담심리학 연구의 현장 사례연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와 상담현장의 괴리가 커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자료의 분석방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양적분석방법을 사용한 논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된 분석은 회귀분석(58.1%), 요인분석(13.6%), 변량분석(9.0%) 순이었는데, 2020년 이후로 회귀분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요인분석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량분석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양적분석방법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한 게

재논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는 합의적 질적연구, 현상학적 방법, 근거이론의 순이었다. 2003년~2011년에 국내 상담학 논문에서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현상학적 방법, 합의적 질적연구 순으로 나타난 것(박승민, 2012)과 비교해볼 때 이전에 비해 근거이론보다는 다른 질적연구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더불어 2018년, 2020년, 2022년에는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한 연구가 투고되어 게재되었는데 이는 최근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방법이 내러티브를 포함하여 현상학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연구주제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상담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의 게재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그리고 2019년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한 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에서 보고한 시기별로 상담 관련 주제의 논문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다룬 8년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논문은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심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가 공개된 2020년 이후 상담심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담자를 연구주제로 한 논문 중 상담자 인식을 다룬 연구가 2022년에 대폭 늘어난 현상도 여러 이슈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상담자와 상담심리학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주제로 한 논문이 증가한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상담자의 다문화 및 사회정의 옹호 역량에 대한 상담심리학자의 관심이 증가(최가희, 2018)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성격과 적응을 주제로 한 논문들의 소주제별 분류에서도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비율이 증가한 주제는 ‘성격’과 ‘자살/자해’였다. 성격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증가해 온 연구주제인데(김계원 등, 2011; 박경애, 백지은, 2017; 조성호, 2003), 내담자의 성격 변인을 고려한 상담적 개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해를 주제로 한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영, 2022; 이희정, 이현, 2021)로 보고된다. 또한 자살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96년(2편)부터 꾸준히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 정점(216편)을 찍은 후 2015년~2018년 내에는 179편~225편 사이로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조경원, 한나영, 2021). 자해/자살을 주제로 한 논문이 증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상담심리학이 사회적 현안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상담심리학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상담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상담

심리학 연구 동향을 통해 학문적 자기성찰이 필요한 지점과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을 발견하는 데도 유용하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 및 성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담심리학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고유한 전문 분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상담심리학이라는 분야의 학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상담 실제 역량의 범위에 대해 상담심리학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 전체, 그리고 다른 전문 분야들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담과정 및 성과에 대한 연구는 상담심리학에서 제공하는 실무적 역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지를 보여줌에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상담 과정 및 효과성 연구, 내담자를 포함하는 연구가 거의 없으며 점점 더 줄어드는 양상을 띠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가 공개된 2020년 이후 심리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제 상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과정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상담심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전문가 집단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이론적 실무적 기초자료들을 축적할 필요는 더욱 커졌다. 지속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성격과 적응이라는 주제는 상담심리라는 분야만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라기 보다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과 중첩됨을 고려할 때 상담 성과나 과

정에 대한 연구 비율이 낮은 것은 큰 우려를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간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해 온 상담성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관점은 1988~2003년에 실시된 연구(조성호, 2003)에서부터 2012~2016년(박경애, 백지은, 2017)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이 문제가 개선된 것이라 아니라 최근 들어 더 심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 장벽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연구나 실험연구와 비교할 때, 실제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방법의 엄정성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과정 및 성과 연구에 대해서도 양적연구방법에 근거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주제 연구의 게재율이 낮을 수 있다. 더불어 질적연구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 비해 심사가 가능한 심사자의 수가 적어 다양한 질적방법론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상담학회에서는 연구설계 및 방법의 엄정성을 중요시하는 기존 학술지(“상담학연구”) 외에 2016년에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여 내담자를 포함한 사례 및 실제 연구가 발표될 수 있도록 편집의 방향과 기준을 달리 설정하였다. 또한, 정석희 등(2015)은 간호행정학회지에서 매년 첫 번째 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기존의 논문 심사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주제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연구들의 발표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역시 상담과정 및 효과 연구가 촉진되고, 내담자 대상 연구가 더 활발히 발표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호 발간 등을 활용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은 연구의 편의성 혹은 수월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연구자들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대상들을 중심으로만 연구대상과 주제를 선정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2017년 이후로 아동 대상 연구는 전무하고 2015년-2022년 동안 장애인 대상 연구는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의 편의성을 반영할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연구윤리 강령을 2017년과 2018년에 개정하면서 연구진실성 심사가 강화되었는데 연구윤리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미성년자의 경우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도 추가되었다. 또한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리서치 회사들의 경우 일반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무자들의 게재율이 낮다는 점 역시 상담심리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응용 심리학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상담심리라는 학문 분야가 현장에서 실제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학문 분야로서의 상담심리는 실무와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실무

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전문연구자들에 비해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논문을 쓰고 투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낮은 게재율)으로 인해 학문적 활동에 점점 가치를 두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거 기반한 상담 실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장 실무자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속할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의 공동 연구를 장려하거나 실무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상담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상에서 기타 분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컸다는 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지지한다. 전통적인 다문화 상담은 성별, 인종/민족, 성적 취향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내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유한 맥락을 반영하는 다문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상담심리학회(The Society of Counseling Psychology, 2020)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넘어서서 상담심리학의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며, 다양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및 맥락적 요인들을 고려하고, 연구, 임상, 사회 운동을 통해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탈식민지화를 강조하며 미국이나 서구사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연구나 개발한 이론들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고유

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DeBlacere 등, 2019; Singh, 2020). 따라서, 연구 대상의 다양화에 부합하는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판적 이론(critical theory, Delgado & Stefancic, 2017), 해방심리학(liberation psychology, Martín-Baró, 1994), 여성주의 이론(feminist theory, Worell & Remer, 2002) 등과 같이 다양한 다문화 관련 이론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적 요인과 효과 이외에 집단 특수성을 고려한 치료적 과정과 성과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의 다양화, 특히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질적 연구를 사용한 논문들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양적연구 방법론의 비율(72.2%)에 비해 질적연구(16.7%) 및 혼합연구(4.7%)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다. 이는 질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상담심리학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훈련이 학회차원에서든 대학원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담심리학 내에서 확대된다면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사용한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발전 방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상담심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 교육과 훈련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상담심리 정체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연구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 교육과정이나 수련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 과정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방법,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질적 연구 방법론의 경우 대학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관 연구들이 상담심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심리 교육 및 훈련과도 연계되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박경애, 백지은 (2017).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2012~2016) 분석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게재논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893-913.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 977.
- 백은정, 신호정 (2022). 기업상담 연구동향과 제언: 국내 상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1), 2767-2780.
- 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 서영석. (2019). 한국상담심리학회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회원들의 인식 I: 학회 제반 활동에 대한 학회원들의 만족도 및 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365-1405.
- 성현모, 양난미, 하재필, 이상민. (2023).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 탐색: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357-383.
-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113-158.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 37-58.
- 이지영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 자해 연구 동향: 2010-2021년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24(1), 457-472.
- 이희정, 이현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자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1, 5-28.
- 정석희, 이태화, 유소영, 서명희 (2015).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불가논문 분석 [2012년~2015년 6월]. 간호행정학회지, 21(5), 561-574.
- 조경원, 한나영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감정노동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6(6), 119-133.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추석호 (1991). 상담연구의 동향. *지도상담*, 15(1), 77-89.
- Buboltz, W. C. Jr.,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1973-1998).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496-503. <https://doi.org/10.1037/0022-0167.46.4.496>
- DeBlaere, C., Singh, A. A., Wilcox, Cokley, K. O., Delgado-Romero, E. A., Scalise, D. A., & Shawahn, L. (2019).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n, now, and looking forwar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7(16), 938-962. <https://doi.org/10.1177/0011000019893283>
- Delgado R., & Stefancic J. (2017). *Critical race theory* (3rd ed.).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rtín-Baró I. (1994). *Writings for a liberation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gh, A. (2020). Building a Counseling Psychology of Liberation: The Path Behind Us, Under Us, and Before U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8(8), 1109-1130. <https://doi.org/10.1177/0011000020959007>
- Worell J., & Remer P. (200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Empowering diverse women* (2nd ed.). Hoboken, NJ: Wiley.

원 고 접 수 일 : 2023. 07.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9. 14

게재결정일 : 2023. 09. 18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rends and Challenges: An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2015-2022)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u-Ri Joeng¹⁾ Minjeong Kim²⁾ Ji-yeon Lee³⁾ Jisun Jeong⁴⁾ Seungmin Yang⁵⁾ Eunjoo Yang⁶⁾

¹⁾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²⁾Ajou University / Professor

³⁾Hankuk University of Foreig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rofessor

⁴⁾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⁵⁾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grative Therapy / Master student

⁶⁾Korea University / Professor

The counseling psychology community in Korea is grappling with role,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issues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counseling psychology licensure. These concerns and challenges are reflected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research, examining field identity and challenges, and proposed future directions. We analyzed the overall and yearly trends of the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rom 2015 to 2022, focusing on researcher affiliation, participants, method, and topics. Most researchers were affiliated with domestic universities (88.7%). Adults (47.1%) and college students (24.9%) were common participants. Quantitative methodology (72.2%) and the topic of personality and adaptation (47.3%) were the most prevalent. There were fewer studies on counseling outcomes and processes, while there was an increase in research on diversity since 2019 and on perceptions of counseling services since 2020. We present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rends, professional identity, challenges